입학 전부터 체계적 관리…취업 경쟁력 비결

동신대학교가 에너지밸리·강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캠퍼스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신대학생들. 〈동신대 제공〉

학생 실력 키워주는 동신대학교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
일자리센터 등 국가지원사업 6관왕
에너지융합대학, 혁신도시 인재 양성

동신대 11~15일 수시모집
전형별 2회 지원 가능

동신대학교는 오는 11~15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전체 모집인원 1633명 중 92.3%인 1,507명(정원내 1422명·정원외 85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64명, 학생부 교과전형은 1308명, 실기위주 전형은 35명이다. 학생부 교과전형 내에서는 한의예과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에너지융합대학 신입생 114명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뽑는다.

동신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별로 2회까지 복수지원(실기위주 전형은 복수전형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가 군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운동처방학과, 생활체육학과 등 5개 학과로 줄어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감소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이 크게 늘었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교과의 경우 100% 학생부(교과 80+출결 20) 성적으로 합격자를 가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70%(교과 50+비교과 2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동신대학교가 2015년 취업률 71.4%로 70%대를 돌파하며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대학 평균 67.5%에 비해서도 3.9%포인트 높다. 동신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7년 가운데 6년 동안 광주·전남 졸업생 1000명 이상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취업난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동신대 학생들은 왜 취업률이 높을까. 그 비결은 빈틈없는 교육·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꼽는다.

◇**정부 지원금 교육에 집중 투입**=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의 대학 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되고 지원금을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 투입해 재학생 역량을 높여왔다.

대표적인 사업인 '잘 가르치는 대학'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과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LINC+(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Ⅰ)이다. 이들 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동신대를 포함해 7개 대학에 불과하며 호남에서는 동신대학교가 유일하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대학일자리센터사업까지 선정돼 국가지원사업 6관왕을 차지하며 취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입학 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프로그램**=동신대 예비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공 수업 공부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입학과 동시에 동기유발캠프를 운영해 신입생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심어주고, 입학 후에는 취업·해외연수·해외봉사 등 본격적인 교과·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알찬 대학생활을 도와주는 줄탁동시, 교학상장, 동고동락프로그램, 공동 관심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어깨동무, 길라잡이, 학습력을 키워주는 러닝클리닉프로그램, 창의적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과 국제화 프로그램 등 140여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교과 영역에서 놓칠 수 있는 빈틈을 꼼꼼히 채워준다.

특히 '불 꺼지지 않는 캠퍼스'와 재학생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동신반딧불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ASP, After School Program)은 학교 지원을 받아 교수와 그룹스터디를 하면서 전공기초, 전공심화,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주력하며 졸업생들의 평판도를 높여온 점도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신대는 좋은 인성의 바탕 위에 실력을 갖춘 인재,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아는 Together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졸업인증제와 연계해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성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감사하기 등 Jump Together123 캠페인을 전개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기업들이 인재 채용시 인성을 중요시하면서 동신대학교의 인성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는 현장 실무중심 교육·취업프로그램**=현장 맞춤형 교육도 눈에 띈다. 신입 채용에서도 실무 경험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발맞춰 다양한 현장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전공 관련 기업에서 장기현장실습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연계 현장 교육을 받으며 준비된 인재로 거듭나게 도와준다. 또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현장견학, 해외 산업체 탐방 등을 운영해 현장 감각을 키워준다.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다.

동신대는 취업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되며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무역량 향상과정과 취업자격증과정, 직무적성검사, 해외취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광주전남혁신도시 특화 프로그램, 취업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인 대정프로그램(드림&스마일)을 통해 취업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있다.

◇**에너지밸리·강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정착도 동신대학교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한전을 포함한 16개의 공기업이 동신대 인근인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한전 인근에 에너지밸리가 조성되면서 나주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신대는 교육부의 PRIME 사업 선정으로 2개 학부 8개 전공 규모의 에너지융합대학을 신설하며 에너지 신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2018년 완공 목표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도시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대학중 유일하게 한전의 Smart Energy Campus 구축사업에 선정돼 에너지분야 신사업 모델 실증과 마이크로그리드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엄마와 함께 과학캠프' 170명 참여

전남대학교 WISET호남제주권역사업단(단장 신말식·전남대 식품영양과학부 교수)이 주관하는 과학캠프가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엄마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전남대학교 후원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2017년 캠프는 ▲물리-자이로 팽이 ▲화학-과자 속 염분 측정 ▲생물-인체의 비밀-골격과 내장 △ 지구과학-태양의 구조 등 4개의 주제 별로 각 40분 씩, 총 160분 동안 진행됐다.

어린이들에게 이날 캠프는 생활 속 과학을 엄마나 아빠와 함께 체험하고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최 측은 부모들에게 가정에 돌아가 과학 선생님이 되어 자녀의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물먹는 꿀꿀이' 실험재료를 선물로 제공했다. 또, 우수 체험 수기를 보내준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는 2017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재 진출 및 활용촉진사업'에 군산대학교와 함께 호남제주권역사업단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1년까지 여성인재 활용 촉진 사업을 중점 진행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과학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와 학부모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강대, 전문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선정

의사 등 전문강사 보유

동강대학교가 광주·전남 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전문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강대(총장 이민숙)는 2009년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에 이어 2015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한국전문소생술(KALS) 교육기관 인증을 받았다. 동강대는 "명실상부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강대 응급의료교육센터(센터장 최길순)는 최근 미국심장협회(AHA)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로부터 A-CLS(전문심장소생술) 훈련기관 Site 인증을 받았다.

'ACLS'는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춰 호흡이 정지됐을 때 전문소생술 팀에 의해 시행되는 응급처치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단순 처치술인 기본심폐소생술에 의료 장비와 약물까지 사용하는 교육이다.

동강대는 'ACLS' 인증으로 MD 코스(의사)와 Non MD 코스(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의학과 본과 3,4학년, 간호·응급구조과 최종 학년)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

최길순 센터장은 "이번 인증은 응급구조 교육에 필요한 시설 뿐 아니라 의사와 3명의 전문강사 등을 보유하는 등 완벽한 시스템을 공인받은 셈"이라며 "응급의료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전문화 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서 일반인과 전문 의료인 교육 외에도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다.

동강대 응급구조과는 2015년 광주 남구와 관·학 협력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초·중·고교생을 비롯해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